

‘청소년 문화’ 읽기의 윤리와 그 딜레마*

- 1990년대 『또 하나의 문화』에 나타난
‘청소년의 자유’ 담론과 청소년의 글쓰기 -

김정은**

〈차 례〉

1. 서론
2. 역방향의 계몽을 구성하기와 ‘청소년 문화’ 읽기의 방법론
3. 위계적 이분법을 해체하는 ‘불량’한 청소년들의 문화적 실천
4.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이 1990년대에 문화의 소비자이자 생산자로 부각된 국면에서 이들의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역방향의 계몽을 시도한 또 하나의 문화의 잡지 기획에 주목한다. 또 하나의 문화 동인들은 대안적 주체 형성의 실천 지대로 문화를 보는 개념을 1990년대에도 여전히 고수하면서 후기산업사회의 문화논리가 전면화되고 있다는 위기의 수사 속에 청소년 문제를 시급히 제기하려는 전략을 구사했다. 제13호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 1(1997. 5)와 14호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 2(1997.12)는 그러한 위기 인식에서 비롯된 청소년 문화 읽기의 시도였다. 2장에서는 또 하나의 문화 동인들이 청소년을 계몽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 문화’ 읽기를 통해 어른을 계몽하는 역방향의 계몽을 구성했음에 주목했다. 비당사자인 어른으로서 청소년에게 말을 걸고자 시도했던 글에서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하위 주체의 목소리로 그 자체로 들으려는 태도와 함께 청소년의 목소리 그리고 하위문화를 한국 사회의 탈식민화를 위해 분석과 해석이 요구되는 텍스트로 보는

* 이 글은 2023년 8월19일에 열린 한국근대문화회 “한국문화와 자유의 지층”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시선이 동시에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3장에서는 1990년대에 ‘불량’한 청소년으로 간주되었던 이들의 목소리가 또 하나의 문화의 잡지 지면에 등장한 것에 주목했다. 탈학교 청소년, 사이버 키드, 오빠 부대로 불렸던 이들은 1990년대에 부상한 ‘사이버 공간’, 그리고 대중문화 특유의 ‘혼증성’이라는 ‘1990년대적인 것’을 호흡하면서, 당대 한국 사회에 작용해 온 어른/아이, 실제 세계/가상 세계, 고급 문화/저급 문화, 언더그라운드/대중 등의 위계적 위분법을 해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청소년들의 자유와 해방에 대한 주장은 단지 그들의 ‘자유’와 ‘해방’을 주장한 것에 그치지 않았는데, 다양한 위계적 이분법을 해체하며 문화적 민주주의에 다가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화의 잡지 기획은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새로운 ‘위상’을 가지고 등장하는 것에 기여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또 하나의 건전한 ‘시민성’을 요구한 어른들의 계몽적 욕망과 목소리가 부분적으로 존재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 역시 찾을 수 있다.

[주제어] 또 하나의 문화, 청소년 문화, 탈학교 청소년, 사이버 키드, 오빠 부대, 혼증성

1. 서론

……김영삼 대통령 이하 교육부 장관, 강원도 교육감, 춘천시 교육장, 강원도 지사, 춘천시장님께. 저는 강원도 춘천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최우주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소하려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68조에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이와 같이 그 절차를 거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안될 게 뻔하니까 포기하라고 하셨지만 저의 요구가 너무 적고 상식적인 것이라 웃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최우주입니다. 저의 장래 희망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되어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은 헌법 재판소의 명석한 판결로만 구제될 수 있는 비판적인 상황 바로 그것입니다. 즉, 국가 공권력의 하부 단위를 이루는 고등학교의 운영 주체인 교장, 교감 선생님이 학교 교육을 목표 달성만을 강요하는 입시 지상주의 교육으로 변질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고 또한 인간인 학생들의 존엄성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경험한 기본권 침해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1)

1995년 7월 22일 하이텔의 토론 게시판에는 위와 같이 시작하는 하나의 글이 올라온다. 이 글은 자율 학습과 보충 수업 강요는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 전 다른 구제 절차를 먼저 거치고자 민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 글을 올린 최우주는 교육 당국의 저지로 실제 헌법 소원을 제기하지 못했다. 하지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최우주 군의 학교문제, 함께 따라가 봅시다.”라는 제목의 토론 게시판이 생기며, 청소년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목소리들이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온라인 상의 토론 공간은 1996년 ‘학생복지회’라는 조직의 결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들은 1990년대 중반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요구하는 의식이 대두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청소년’을 더이상 ‘학생’이라는 기존 정체성에 묶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케 하는 사건(한 인간으로서의 개성과 자율성을 의식)들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청소년의 삶과 문화와 관련한 여러 우려와 불안의 시선이 있는 가운데 ‘어른/아이’의 이분법에 근거해 그 자율성을 부정하는 것이 지배적인 흐름이 되어가고 있기도 했다. 청소년을 보호와 선도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민주화 이후 성인남성을 중심으로 위계화된 시민성을 주도해내는 흐름”을 1997년 청소년 보호법의 제정에서 감지할 수 있기도 하다.²⁾

또 하나의 문화(이하 또문) 동인들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과 흐름들-변하고 있는 청소년, 변하지 않는 어른-을 호흡하면서 청소년의 문화를 읽으려는 어른들의 이야기와 청소년 당사자가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를 함께 신는 잡지 기획을 시도한다. 또문 동인들은 대안적 주체 형성의 실천 지대로 문화를 보는 개념을 1990년대에도 여전히 고수하면서³⁾ 후기산업사회의 문화논리가 전

1) 최우주의 글 전문을 구해 보지 못했으나, 한 연구에 따르면 최우주가 학생들이 침해받고 있는 기본권으로 제시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었다. 최우주의 글 역시 다음 연구에서 참조하고 재인용함. 김영지, 「청소년 웹진(Webzine)활용의 실태와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12, 76-78쪽.

2) 류진희, 「“청소년을 보호하라?”. 1990년대 청소년 보호법을 둘러싼 문화지형과 그 효과들」, 『상허학보』 54, 상허학회, 2018 참조.

면화되고 있다는 위기의 수사 속에 청소년 문제를 시급히 제기하려는 전략을 구사했다. 제13호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 1(1997. 5)와 14호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 2(1997.12)는 그러한 위기 인식에서 비롯된 청소년 문화 읽기의 시도였다. 한편 이 기획은 ‘청소년’을 문화적 주체자로 호명·부각하는 가운데 다양한 청소년들의 글을 실는다. 이 기획은 청소년에 대한 대안 담론을 생산하고 싶어했던 (비당사자인)기성 세대의 목소리와 (당사자인)청소년들의 목소리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다. 1990년대에 부상하기 시작한 청소년의 자유와 관련해 제기된 담론들을 특히 세대 변수를 고려하며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또문의 이러한 ‘간세대적 기획’이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을 둘러싼 언설과 청소년의 언설을 살펴보는 것은 단지 청소년이라는 특정 세대, 소수집단의 자유와 관련한 언설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청소년 집단이 문화의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이 시기에 특별히 주목되었다는 사실과도 연관된다. 1990년대의 문화적 지형이 이들에 관한 언설과 이들의 언설을 중심으로 재구·맥락화될 수 있다는 점에 본고는 또한 주목한다. 청소년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1990년대에 부상한 ‘사이버 공간’, 그리고 대중문화 특유의 ‘혼종성’이라는 ‘1990년대적인 것’을 호흡하며 만들어진 감성과 언어에 기반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2. 역방향의 계몽을 구성하기와 ‘청소년 문화’ 읽기의 방법론

5호 『누르는 교육 자라는 아이들』(1989)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문화의 병

3) 1985년부터 발간된 『또 하나의 문화』는 글쓰기를 포함한 문화적 행위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매개할 수 있는 문화적 주체자를 대안적 여성 주체성으로 구성하기도 했었다. 이때 ‘주변성’이 지닌 인식론적 특권이 부각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조한혜정은 여성의 하위문화에 대한 아드너 부부의 인류학적 접근을 경유해 소외 그리고 억압된 집단이 새로운 인식 모델을 창조할 수 있는 문화적 능력이 개발되어 있다는 논의를 펼쳤다. 이를 통해 ‘대안 문화’와 이를 매개할 ‘문화적 주체자’와 관련한 또문의 공동의 인식기반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서 다룬 바 있다. 김정은, 「전망으로서의 여성과 여성 지성의 ‘자리」, 『한국학연구』 5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폐를 비판한 바 있었던 또문 동인들이 1990년대 중반 ‘청소년’ 관련 기획을 이어간 것은 문제가 한층 복잡해진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조한혜정은 앞서 출판된 자신의 저서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1996년 12월 발간)에서 “입시 제도라는 괴물의 목 하나만을 자르면 되었고 생각했던 1980년대가 그리울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⁴⁾

조한혜정은 이와 관련해 더 이상 제도 교육과 어른이 청소년을 학교에만 묶어놓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세대 간의 의사 소통이 붕괴한 상태라는 것을 하나의 현실 인식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1990년대의 교육 문제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와 소비 상업주의라는 배경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제”이기도 한데, 변화하는 아이들을 학교에 묶어놓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할 수 없음을 언급했던 것이다.

이제 교육 문제의 핵심은 경쟁에서 이기는 아이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자포 자기 하지 않고 세상을 버티며 살아가는 아이를 길러 내는 데 있다. 탈근대적 흐트러짐 속에서 자기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아이를 길러 내는 데 있다. 그래서 논의의 초점은 좁은 의미에서의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 문화와 그들의 ‘주체 형성’에 놓여야 하는 것이다. 십대에 형성된 주체는 한 인간이 긴 인생을 통해 만들어 갈 삶의 폭을 결정한다. 그리고 개개 구성원들의 삶의 폭은 곧 그 사회의 미래를 가늠한다.⁵⁾

이러한 조한혜정의 논의에서 일차적으로 엿볼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지배 문화와 어른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어른 비판론’이다.⁶⁾ 그런데 ‘청소년’들에 대한 기성 세대로서의 우려의 시선 역시 나타난다. 청소년들이 소비 자본주의의 도래로 탈근대적 흐트러짐 속에서 자기를 존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

4) 조혜정,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6, ix쪽.

5) 위의 책, 8쪽.

6) “인간의 혼을 빼놓는 소비주의의 물결 속에 빠져 죽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교육이 시급”한데, 이를 담당할 어른들은 “자신들이 예전부터 알고 있는 게임”, 즉 ‘입시 문화’라는 각본을 청소년들에게 여전히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려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조한혜정을 비롯한 또문 동인들은 이러한 우려와 불안을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계몽하는 기존의 방식으로 해소하지는 않았다. 기성 세대와는 전혀 다른 감성과 욕망을 당대의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세대간의 벌어진 거리를 메울 말을 (어른들이) 한마디씩 배우기 시작하지는 거꾸로 된 계몽의 방향을 오히려 제안했다.

어른을 계몽하는 역방향의 계몽적 목소리가 이 기획에서 부각되고 있었다. ‘청소년의 삶 읽기를 위한 한 어른의 뉘우치는 글’이라는 부제가 달린 정유성의 글은 ‘청소년 문제’라는 말을 아무런 반성없이 쓰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글을 시작한다. 이 글은 교실에서 대부분 낙오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을 비판하는 가운데, 기성 세대의 눈앞에 낮설고 폭력적인 존재로 등장한 청소년을 보고 “아무 대책 없는 개탄이나 분노의 신음소리”를 내는 것 역시 멈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는 이 청소년들을 어찌할 것인가, 하는 아무 대책 없는 개탄이나 분노의 신음소리를 그만둘 때가 되었다. 다만 청소년이라는 주제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 이른바 방법적인 몰음, 뉘우침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른들이 스스로를 되돌아 보는 일이다. (중략) 이제 청소년들을 어른들 멋대로 이렇고 저런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이름짓는 일부부터 그만두자. 청소년들을 한마디로 이런저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라 규정하는 일은 쉽지 않을뿐더러 마땅한 일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미지의 집단이며 아직 기성세대를 거부하며 그들과는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지닌 집단으로, 미지의 거부와 반항과 이탈로만 상징되는 집단으로, 좀처럼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부정과 긍정의 총합이기 때문이다. (중략) 이들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만 주어진다면 반발과 거부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삶을 살며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들이다.⁷⁾

7) 정유성, 「너그러이 용서하려무나」, 또 하나의 문화 편,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 1-또 하나의 문화 제13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7, 23~24쪽.

아무 대책 없는 개탄이나 분노 역시 청소년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와 함께 청소년을 함부로 규정하지 말자는 주장 역시 하고 있다. 이는 어른들의 언어와 감성으로 청소년 집단의 경험과 문화를 읽을 때, 함부로 재단하는 것이 쉬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발화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언급은 또문이 13호와 14호를 기획·발간하면서 어떤 곤경에 처했을지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동인모임 또문이 잡지 기획을 통해 그동안 주로 다뤄왔던 ‘여성 문제’와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같고 다른지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여성 문제’가 조금이라도 여성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었던 ‘당사자성’이 있었던 문제라면, ‘청소년’ 문제는 이미 기성 세대가 된 또문의 어른들에게 ‘당사자성’이 없는 문제였다. 이러한 지점에서 재현의 윤리와 재현의 입장은 고민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당사자성’이 없는 문제를 잡지 기획을 통해 ‘재현’해야 하는 기성 세대였던 어른들은 일차적으로 ‘자기 검열’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는 어른들은 ‘청소년’ 문제라는 용어부터 어른의 입장에서 제기된 잘못된 말이 아닌가를 고민해야 했으며, 어른의 시선과 언어로 청소년들의 경험을 재단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의심을 그 자신들에게 지녀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비당사자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식의 폭력에 대한 의식 속에서도 또문의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와 감성을 관찰·묘사하고자 했다.

이때 청소년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일종의 ‘에스노그래피’적인 글쓰기 시도가 나타남이 주목된다. ‘에스노그래피(ethnography)’는 인류학자가 특정 문화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 문화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낸 결과물로, ‘민족지’ ‘종족지’ ‘문화기술지’ 등으로 번역된다. 분과학문으로서 인류학에서 성립된 연구방법론으로서 필드워크(field work)와 깊은 관련을 맺는 글쓰기 양식이라 할 수 있다.⁸⁾

8) 『또 하나의 문화』가 필드 워크와 그 과정과 결과를 보고하는 데 활용되었던 글쓰기 양식인 ‘에스노그래피(ethnography)’를 잡지 편집의 요소로 활용한 측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서 지적한 바 있

이와 관련해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며 ‘교무’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었던 교사들의 이야기가 특히 주목된다. 「새로 쓰는 교무 일지」를 쓴 이경애는 선생님의 새로운 ‘교무’가 “아이들에게 말 걸기”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필자 역시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해왔지만 요즘 들어서는 아이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음을 고백한다.⁹⁾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 앞에서 그는 오히려 자신이 “여태껏 가르치는 대상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나 이해없이 그저 대량 생산 체제 방식의 수업 진도 계획에만 파묻혀 지내 오지 않았나”하는 반성을 한다. 이러한 자기 반성과 함께 아이들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그는 펼치게 된다. “수업 시간과 수업 준비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들이나 점심 시간을 다 할애”해 아이들을 상담했던 것이다.

이어서 교무수첩에 기록되었을 상담한 아이들(중학생들)의 사례가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제시된다. 이를 통해 더 이상 학교에 묶어놓을 수 없게 되어버린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와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이 전달되고 있다. “난장을 깔 때(노숙)”가 제일 재밌다는 아이, “너희들은 왜 그렇게 오빠들을 좋아하니?”라는 물음에 “선생님은 저희만한 때 없었어요?”라고 되받아치는 아이, 교실에서 포르노소설을 직접 쓰고 그것을 돌려보는 아이들, 후배들에게 멋지게 보이기 위해 자해를 하는 아이 등 그 유형은 다양하다. 다양한 놀이문화를 지닌 청소년들에 대한 일종의 종족지적 기술은 기본적으로 이들의 행동을 염려하는 어른의 시선을 경유해 전달된다. 하지만 필자는 기성 세대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의 행동을 단순히 사춘기의 방황이나 비행으로 치부하는 것에 반대하며 ‘청소년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아이들과 이야기

다. 기존의 지배 문화를 상대화하고 대안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또 하나의 문화』의 일관된 방법론이었다는 점과, 이러한 방법론을 실제화한 것이 다양한 신원과 직업, 위치성을 지닌 주체들에 의해 수행된 글쓰기 실천이었다는 점을 논의했다. 김정은, 「『또 하나의 문화』에 나타난 페미니스트 문화기획과 글쓰기 실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3, 144~145쪽.

9) 이경애, 「새로 쓰는 교무일지」, 또 하나의 문화 편,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 1-또 하나의 문화 제13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7, 183쪽.

하는 방식을 배우”기를 요청하고 있었다.

학교 안에서 내가 지금 제일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하는 것과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계획에 수동적으로 반응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외적, 내적 자극 속에서 스스로 자신들이 편하게 살 공간을 찾아 부산스럽게 움직이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만들어 나가는 존재라고 생각해야 한다.**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경험들은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 위험스럽고, 미숙하지만 아이들 나름대로는 소비, 입시 위주의 사회 속에서 자신을 표현해 보려는 몸부림일 수도 있으며 출구를 제대로 찾지 못한 성장기의 여러 가지 욕망과 좌절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¹⁰⁾ (강조 - 인용자)

‘아이들’ 역시 어른들의 계획 하에 있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수많은 외적, 내적 자극 속에서 스스로 자신들이 편하게 살 공간을 찾아 부산스럽게 움직이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만들어 나가는 존재”임을 우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행동은 단순히 사춘기의 방황이나 비행이 아니라, “소비, 입시 위주의 사회 속에서 자신을 표현해 보려는 몸부림”일 수 있다고 주장된다. 교사(어른)들은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청소년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우선 수행하고 아이들과의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무일지가 새롭게 쓰여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통해 “아이들을 의식적으로 교화시키기에만 급급”한 교사(어른)가 아닌 새로운 교사(어른)관이 제시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과 사귀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의 다양한 입장과 처지를 알아보고, 그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상태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교사(어른)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때 그들의 경험과 생각을 알아가기 위해 다른 세계와 언어를 배우려는 일종의

10) 위의 글, 197쪽.

종족지(에스노그라피) 쓰기가 새롭게 쓰여져야 하는 교무 일지의 성격으로 요구되었다.

한편 청소년의 문화를 읽음으로써 청소년의 생각과 감정에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14호에 실린 다른 글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시대의 교사」는 성직관과 노동자관이라는 기존의 교사를 바라보는 두 관점을 모두 비판¹¹⁾하면서 교사의 전문성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규정한다.

나는 교사가 지녀야 할 가장 기초적인 전문성이란 '사람에 대한 넓고 깊은 이해'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의미에서 이것은 굳이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인문학적 교양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굳이 이것을 거론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인문학적 교양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굳이 이것을 거론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사상의 깊이를 결여함으로써 지극히 기능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지금 이 시기에 사람을 넓고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사람들의 의식·무의식을 읽어 내는 능력, 대중 문화를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중략)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이란 말은 어디까지나 '나의 인식 지평 안에서' 그러하다는 것이다. **이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종족이 아니라면 그들을 읽어 낼 수 있는 단서들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예민한 촉수로 그것을 잡아 내는 것이 이 시대 교사들에게 필요한 전문성이다.¹²⁾ (강조 - 인용자)

11) 필자는 교사의 역할과 관련한 기존의 지배적인 담론이었던 성직 담론과 노동자 담론이 한계를 드러낸 상황이라 파악한다. 성직관은 '사랑', '보살핌' 같은 모호한 말로 번역되면서 교사들의 교육 행위를 판단하는 잣대로 작동해 왔다. 이는 교육에서의 사회와 역사적 맥락을 제거하는 오류를 범하게 했으며, 80년대 교사 운동을 탄압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성직관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는 매우 큰데, 성직관을 표면적으로 거부하는 교사들도 이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문제는 성직관이 교사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그것이 자신에 대한 과도한 부하와 아이들에 대한 무한책임 의식으로 이어지며 결국 쉽게 지치고 과도하게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성직관'에 대한 대항담론으로 제기된 '노동자관'은 이러한 성직관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극복한 의의를 지녔지만, 필자는 '노동자관' 역시 교육학적 상상력과 실천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노동운동과 교육의 거리를 너무 가깝게 설정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복선, 「이 시대의 교사」, 또 하나의 문화 편,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 2- 또 하나의 문화 제14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7, 31~34쪽.

12) 위의 글, 35쪽.

위의 언급에 따르면 새 시대의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 중 하나는 ‘사람에 대한 넓고 깊은 이해’이다. 이 능력을 보다 특징해 “대중 문화를 분석하는 능력”이라 필자는 말하고 있다. ‘대중 문화’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종족”이 아닌 청소년들의 생각과 감정을 “읽어 낼 수 있는 단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청소년의 문화를 읽기 위한 하나의 매개로서 ‘대중 문화’에 주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중 문화’를 매개해 청소년의 생각과 감정을 읽기 시도하는 모습을 이 기획에서 직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박혜란의 글 「세상에 그 정성으로 공부나 하라지?」를 살펴보자. 박혜란은 자신의 아들(당시 패닉으로 활동하던 이적)에게 온 청소년 팬들의 팬레터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청소년들의 생각과 감정에 다가간다. 여학생 팬들에게 한동안 시달리고도 했던 그는 자신의 아들이 하는 공연에 갔다가 다양한 팬들이 존재함을 발견하고 어머니로서 기뻐한다. 하지만 자신이 여학생 팬들을 ‘정신 나간 오빠 부대’로 싸잡아 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내가 여학생 팬들을 ‘정신 나간 오빠 부대’로 싸잡아 우습게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학생 팬이라면 무조건 음악성과는 상관없이 가수의 생김새나 분위기에 열광하는 집단으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의 그 고상함과 편견이 아주 역겹다. 청소년에게 비상구를 마련해 주지 않는 사회에서 아이들 나름대로 열광하는 대상을 찾아내는 것 자체는 또 얼마나 눈물겹고 아름다운 노력인가.

아이고 속보인다 속보여, 그런 여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돈을 버니까 저렇게 눈물겹느니 아름답느니 어찌구 한다고 비웃는 어른들이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저 산더미처럼 쌓인 팬레터 중에서 아무 거나 잡히는 대로 몇통 건네 주고 한번 읽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중략) 그러나 적이 오빠 눈에 띄기 위해 온갖 꺾밧을 부린 너무 화려해서 지저분하기까지 한 갖가지 봉투 속에 담긴 내용은 겉보기와는 달리 매우 진솔하고 또 무거웠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편지들 속에는 오빠에 대한 이야기보다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았다. 조금 과장을 보탠다면 봉투 하나하나에는 그것을 쓴 조그맣고 여린 한 인간의 꿈과 현실이 고대로 담겨져 있었다고나 할까.¹³⁾

“여학생 팬”을 가수의 음악성이 아닌 생김새나 분위기에 열광하는 집단이라 치부하며 그들의 향유 방식을 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우선 비판되고 있다. 청소년들 나름대로 “열광하는 대상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실천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박혜란은 직접 팬레터를 읽으면서 이러한 인식에 도달하기도 했는데, 편지라는 형식을 통해 여학생 팬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했다. “봉투 하나하나에는 그것을 쓴 조그맣고 여린 한 인간의 꿈과 현실이 고대로 담겨” 있었던 것이다. 박혜란은 자신이 읽은 팬레터를 몇 가지로 유형화하는데,¹⁴⁾ 이 중 모니터를 자임하고 나선 팬들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편지에 담는 아이들”이라 논의된다.

바로 이 모니터 팬들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편지에 담는 아이들이다.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매일 쓸 수밖에 없고 매일 쓰다 보니까 �빠 이야기보다 자신의 이야기가 더 많아지는 모양이다. 그렇게 얼마 동안 계속하다 보면 모니터할 내용도 자꾸 반복되는 바람에 생략하게 되고, 편지 쓰기는 어느새 일상으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결국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 같다. ‘적이 옐에게’로 시작된 편지는 이제 일기로 변한다. 일기로 변한 편지에는 그들의 하루하루가 실물 크기로 담겨 있고, 그들의 느낌과 생각 역시 싱싱한 상태로 펼쳐진다.¹⁵⁾

매일 쓰기 때문에 편지가 일기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편지들을 중심으로 박혜란은 “일기 대신 쓰는 편지”에 담겨있는 청소년들의 세계를

13) 박혜란 「세상에 그 정성으로 공부나 하라지?」, 또 하나의 문화 편,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 1-또 하나의 문화 제13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7, 88~90쪽.

14) ‘옐! 사랑해요’의 비명으로 가득찬 편지들, 연예인을 이성으로 대하는 편지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편지들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옐을 통해 자신의 삶의 길을 정했다는 고백이 행해지는 편지들, 평론가로서의 팬을 자처하는 편지들, 모니터를 자임하고 나선 편지들로 유형화된다.; 위의 글, 90~91쪽.

15) 위의 글, 91~92쪽.

보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편지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낱말은 ‘공부, 시험, 성적’이다. “아이들이 연예인에게 열광한다고 해서 더 공부에 무관심해질 거라는 어른들의 예상”과 다르게 공부, 시험, 성적에 짓눌리고 있는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팬레터에서 나타난다. 입시 문화가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 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기회도 부여받지 못한 채, 자신의 일상적 시간을 ‘공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혼한 이야기가 팬레터를 통해 재생된다.

오빠, 오늘도 엄마한테 공부 열심히 안한다고 야단 맞았어요...오빠, 오늘은 중간 고사가 꼭 1주일 남은 날이에요... 오빠, 이번에 또 성적이 떨어졌어요... 오빠, 오빠는 공부 하기 싫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냈나요... 오빠, 제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오빠, 왜 저는 독서실에만 가면 잠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이미 “왜 공부를 해야 하느냐?”와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한국 사회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타인들이 아니라 부모님들까지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일단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중략) 시험인데도 새벽 세 시 이전에 잠을 잤다고 자책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에 오히려 내가 화가 날 지경이다.¹⁶⁾

박혜란의 글은 일차적으로는 ‘오빠 부대’라는 편화된 규정 뒤에 폐제된 여학생 팬들의 생각과 감정을 나타내려는 시도이다. 그런데 나아가 이들의 생각과 감정이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담지하고 있다는 것, 청소년들이 내는 목소리가 역으로 기성 세대를 성찰하게 만드는 지점 역시 나타내고 있었다.

“오빠, 오빠는 항상 ‘자신이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꿈을 찾아서

16) 위의 글, 92-93쪽.

키워 나가라'고 하시는데 저의 정말 고민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무언지 저 자신이 모른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도 있나요. 저는 꿈이 없나 봐요.”

(중략) 21세기는 개성을 발휘하면서 그것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개성을 발견하는 일조차 겁을 먹고 있다. 도대체 세계에서 두 번째라는 우리의 교육열은 무엇을 위한 열기인가.

지금 청소년의 부모들은 대부분 꿈과 현실을 늘 구분하면서 살아야 했던 세대들이다. 그들은 청소년기에 꿈을 꾸다간 밥을 굶는다고 배웠다. 그렇게 자라서 배ભ리 먹게 된 그들은 어찌된 셈인지 자식들에게까지 꿈꾸기를 금지했다. 이제 아이들은 꿈꾸기가 무언지도 모르게 되었다. 이걸 정말 모든 어른들의 실수이다.¹⁷⁾

자신이 꿈이 없는 사람이라는 한 청소년의 괴로운 목소리는 한국 사회의 교육열이 “무엇을 위한 열기”인가를 질문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없는 것은 어른들의 탓이라 논의된다. “청소년기에 꿈을 꾸다간 밥을 굶는다고 배웠”던 부모 세대는 그들의 자식 세대들이 꿈을 꾸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꿈을 꾸는 것을 금지당한 것과 연예인에 열광하는 것의 상관성이 언급된다. 청소년들에게 연예인들은 “그들의 꿈을 대신 꾸어준 사람들”로 다가오는데, 그들은 “꿈과 밥을 일치시킨 사람들”로 청소년들 눈앞에 등장해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연예인을 좋아하는 현상은 단지 공부 밖으로 눈을 돌리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꿈을 꾸는 것을 금지하는 어른들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하위문화적 실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글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또한 동인들이 ‘청소년 문화’를 청소년의 현실을 읽기 위한 중요한 매개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저항성’을 담지하고 있는 어떤 실천들이 일어나는 혹은 일어날 수 있는 대안적 주체 형성의 실천 지대로 보고 있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의 ‘빠빠 문화’가 지닌 의미와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글에서 이러한 인식의 대표적 사례를 또한 발견할 수 있기도 하다. 「빠빠 속에 내가

17) 위의 글, 95-96쪽.

있나요』의 필자는 청소년들이 기존 지배 문화의 압력 속에 ‘일관된 자신들의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적 여력을 갖지 못한 집단이라는 다소 박한 평가를 내린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자신들의 것을 갖지 못한 것은 아니라 언급하는데, “대중문화 혹은 소비문화에서 건너 온 ‘유행’ 혹은 ‘스타’, ‘스타일’들에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들을 투여”함으로써 그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입시문화로 대표되는 기존의 지배문화에 대한 ‘소극적’ 저항의 의미를 지닌다고 논의된다.¹⁸⁾

요컨대 비당사자인 어른으로서 청소년에게 말을 걸고자 시도했던 글에서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하위 주체의 목소리로 그 자체로 들으려는 태도와 함께 청소년의 목소리 그리고 하위문화를 한국 사회의 탈식민화를 위해 분석과 해석이 요구되는 텍스트로 보는 시선이 동시에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들어야 하는 것이라는 당위뿐만 아니라 어른과 한국사회를 계몽하는 역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는 기대가 청소년의 이야기를 듣게 만드는 것이기도 했다. 13호와 14호의 지면의 상당수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했던 것은 청소년의 목소리와 하위문화를 대하는 이러한 두 태도의 만남으로 가능해지는 것이었다. 이는 『또 하나의 문화』라는 잡지를 기획·편집했던 또문의 어른 동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문제적인 태도였는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하위문화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위상’을 지니며 잡지 지면에 등장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3. 위계적 이분법을 해체하는 ‘불량’한 청소년들의 문화적 실천

그렇다면 『또 하나의 문화』 13호와 14호에서 청소년들은 어떤 목소리를 직접 내고 있었을까. 집과 학교가 아닌 곳, 청소년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서 어떤 행동들을 감행하고 있었던 ‘불량’한 청소년들의 이야기와 목소리가

18) 이지연, 「삐삐 속에 내가 있나요」, 또 하나의 문화 편,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 1-또 하나의 문화 제13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7, 123~124쪽.

주로 나타났다. 1990년대의 ‘불량한 청소년들 - 탈학교 청소년, 오빠 부대, 사이버 키드 등 - 의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국내 최연소 편집장’ ‘영화 감독 지망생’ 심지어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신세대’로 불리며 당시 탈학교 청소년으로서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했던 김현진은 자신에 대한 세간의 지나친 관심과 오해를 비판적으로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학교를 뛰쳐나왔다’는 것에 지나치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김현진의 자퇴를 다루고 있는 한 기사는 김현진의 자퇴를 “여고1년생의 ‘마이웨이’ 선언”으로 간주하면서, 1997년 당시 창간된 청소년 웹진 네가진(NEGAZINE)의 편집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각했다. 이때 김현진이 자퇴 당시 부모를 설득하기 위해 ‘자퇴 대차대조표’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조명되기도 했다.

대차대조표에서 김양은 학교생활에서 얻는 것도 적지 않지만 잃는게 너무 많다고 적었다. 특히 학교생활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이 아깝다는 게 김양의 주장이다. 숙제 검사, 체벌, ‘전국 차석을 한 여러분의 선배는 이렇게 공부했다…’로 시작되는 선생님들의 반복되는 설교 등을 합쳐 매교시 15~20분씩 주당 9백분이 낭비되고 있다고 김양은 적었다.

잠만 자고 오는 특별활동과 불필요한 암기식 학습시간을 합쳐서 4백40분. 야간 자율학습 중 억지로 앉아 있는 1백 50분, 등하교 시간 6백분 등을 더해 일주일에 약 38시간… 1년 단위로 계산하면 40주수업으로 따져 1천5백20시간, 63일이 낭비되고 있다고 김양은 계산했다.¹⁹⁾

김현진이 작성한 ‘자퇴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학교생활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은 1년 365일 중 약 63일의 시간이다.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쓰여졌을, 어른들의 눈높이에 맞춰 쓰여진 ‘자퇴 대차대조표’라는 문서가 신

19) 장원준, 「여고1년생의 ‘마이웨이’ 선언」, 『조선일보』, 1997.07.10.

문지면을 통해 소개되면서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와 문화를 쟁점화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김현진은 자신이 자퇴를 통해 단지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와 문화만을 문제 삼으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청소년'을 '보호'와 '관리 대상'으로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각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저나, 저희 네가진을 보고 반항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거의 불량아 선봉같이 됐죠. 특별히 저희가 반항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애들은 이제 더 참아줄 맛이 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선도'되어야만 하고 '보호'받아야만 하고 '관리 대상'인 위치에서 참을 맛이 나지 않는 겁니다.** 어른들이 품잡고 말하는 것 중에 '눈높이를 아이들과 맞추자'고 얘기하는 게 있죠. 웹툰에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일단 그 아이라는 말부터 집어치워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중략) 저도 10년여쯤 되는 학교 생활 동안 일단 교사들로부터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특히 자퇴를 결심하게 된 고등학교에서의 갈등. 제가 다니던 학교의 교장은 공공연하게 '열린 교육이 무슨 소용이고 인성 교육이 무슨 상관이나, 대학 못가면 말짱 꽝이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93%의 대학 합격률을 자랑하면서 그 숫자 뒤에 지쳐 가는 학생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제가 하겠다는 영화에 '별 재능도 없어 보이는데 왜 난리냐'라는 말을 망설이지 않고 퍼붓던 교장. 다큐를 찍고 싶다는 제 말에 다큐는 들췄치고 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한 8분 가량만 찍고 싶다는데 전체 시나리오를 '검열'해야 하겠다고, 또문에서의 활동에 축약을 곤두 세우며 그들의 책을 가져와 보라는 등, 제 주변 '성향을 알아야겠다는 등 하는 말에 제가 '질 지금 발그스름한지 아닌지 의심하시는 겁니까?'라고 분개하자 말을 더듬던 학생 주임. 결국엔 '회의 끝에 다른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학생이라고 사료되어 허락할 수 없다, 일체 더 이상 촬영하겠다고 어떤 수작이라도 할 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는 모멸적이고도 협박성을 띤 통보. 심지어 자퇴 후에도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내던 성적이 우수한 친구의 어머니와 통화에서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학생이니 가까이 어울리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는 답임.

(중략) 입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왜 제가 한사코 영화를 하려는지, 그 열정을

한 번 들여볼 생각도 하지 못했고, 자기네가 안된다는데 그걸 고개 숙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지, 안된다면 안되는 거지 왜 말이 많은지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를 그들보다 열등하고, 저열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설마 지가 무슨 말을 하라고 생각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절대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비겁한 언사마저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중략) '청소년 문제'라는 말을 쓰는 빈도만큼 '성인 문제'라는 말을 쓴다면 나라 뒤집히지 않을 날이 없을 겁니다. "대통령도 잡혀 가고, 애통령 아들도 잡혀 가고, 이 컬트 영화 같은 세상은 누가 만든 세상이나" 하면 변명할 겁니다. "무책임한 일부 어른들의 잘못으로 너희들을 볼 면목이 없구나" 등으로 (학교 조회 등에서 많이 듣는 어구입니다.) '일부 어른'이라... 자신들이 잘못된 건 '일부 어른'이죠. 그런데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우리 청소년들은 모두 폭력 집단이요, 파행적인 집단인 겁니다. 왜 그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무리들도 우리 중 '일부'일 뿐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게 다 청소년이라는 존재를 자신들보다 하등하고 열등한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감히 어른한테 맞장 돌려 그러냐"며 화를 버럭 내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청소년 보호법'이니 '청소년 통금 구역'이나 그런 웃기는 것들이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²⁰⁾ (강조 - 인용자)

김현진은 자신이 다큐를 찍는 과정에서 부딪힌 것은 '선도'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어른들의 '검열'과 '통제'였다고 진술한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어른들의 이러한 행동들이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열등하고, 저열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지적된다. 문제는 반항적인 행동을 하는 청소년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미성숙하고 관리해야만 할 존재'로 대하는 어른들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제정되고 있었던 '청소년 보호법'이 함축하고 있는 '청소년'에 관한 관점 역시 비판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법임에도

20) 김현진, 「컬트 영화 같은 세상은 누가 만든 세상?」, 또 하나의 문화 편,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 2- 또 하나의 문화 제14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7, 81-83쪽.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청소년’을 무시한 행동이라 말해진다. 무엇보다 그 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어른들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관리 대상’일 뿐이라는 점이 비판된다.

그가 볼 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무리”는 청소년들의 ‘일부’일 뿐인데, 이런 식으로 ‘청소년’을 문제로 삼는다면 ‘성인’ 문제라는 것도 말해져야 한다고 역으로 공격한다. “요즘 애들, 요즘 애들” 하지만 요즘 어른들도 문제라는 점을 그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발화는 문제를 규정하는 권력이 어른들에게 있음을 문제시하면서 어른들에게는 문제가 과연 없는가라는 질문을 역으로 던진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어른들이 청소년을 어항 속에서 기르는 관상용 열대어나 다마고치 게임의 다마고치처럼 대한다면 “차라리 당당한 불량품”이 되겠다고 당대의 청소년들은 얘기하고 있었다.²¹⁾ 이러한 선언하는 청소년들의 등장에는 ‘PC 통신’으로 대표되는 당대의 뉴미디어 공간,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한 소통이 활성화된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기도 했다.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소통 공간이 열렸음이 김현진의 글에서도 확인되기도 한다.

역시 가상 공간에서 친근해진 몇몇 독자들은 ‘이거 나라에서 보면 넌 안기부에 잡혀갈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에 어깨 각목 들어간 어른들 중에 인터넷할 줄 아는 어른들은 몇 없을 테니까 발 뺀고 자라’며 씩씩한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²²⁾

‘사이버 스페이스’는 청소년들이 모여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정치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공간이었다. 이와 관련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소통을 통해서 ‘학생복지회’를 결성했던 일을 다루고 있는 김한울의 글을 주목해 볼 수 있다. 하이텔 학생복지회의 발기인이었던 김한울²³⁾은 사이버 스페이스의 매력이 무엇보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초월”할 수

21) 위의 글, 84쪽.

22) 위의 글, 80쪽.

23) 글을 쓸 당시에는 대학교 1학년으로 학생복지회의 발기인 중 한 명이였다.

있는 것이라 언급한다. 이러한 사이버 스페이스가 지니는 특징으로 인해 야간 자율 학습, 보충 수업, 두발 단속, 체벌 문제 등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는 다양한 글들을 청소년들은 쓸 수 있었다. 설새없이 글을 올린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글을 읽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무언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 분석된다.²⁴⁾

그런데 온라인 공간에서의 움직임은 바탕으로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움직임 역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이 ‘최우주 헌법 소원 사건’이었다.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이 헌법 소원 계획은 비록 좌절되었지만, ‘최우주 군의 학교 문제, 함께 따라가 봅시다’등의 토론장이 속속 만들어지는 등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었다.²⁵⁾

권영민(17·당시 서울 강서고 3학년) 등의 몇몇이 주도해 만든 ‘학생복지회’가 대표적으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여론을 오프라인에서의 운동으로 전환시키려 했던 움직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학생복지회의 등장은 청소년 운동사에서 청소년들이 학생으로서 당사자 운동을 조직적으로 시작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되기도 한다.²⁶⁾ ‘학생복지회’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이었던 권영민은 한 인터뷰에서 “기존 청소년 단체”가 청소년을 “선도 혹은 교육할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과 달리, ‘학생복지회’는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권리를 얘기하고, 우리 힘닿는 데까지 문제를 풀어 나갈 작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²⁷⁾

24) 김한울, 「사이버 스페이스로 탈출한 아이들」, 또 하나의 문화 편,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 1-또 하나의 문화 제13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7, 159쪽.

25) 하이텔에 개설된 토론 게시판에는 이외에도 ‘한국의 중고생들은 인간이 아니다’(368건), ‘학생의 자유를! 민주화된 학교를!’(291건)이 생겼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관련 기사는 다음을 참조. 김은남, 「학생의 자유를! 민주화된 학교를!」, 『시사저널』 336, 1996.4.4, 48쪽.

26) 「인물로 만나는 청소년운동사」는 “청소년운동”을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 보장 등 권익을 주장하며 활발한 사회운동”이라 정의한다. 이는 그 이전 시대의 ‘고등학교운동’과 시기적으로 그리고 성격적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의 민주화운동과 교사운동, 자주 통일·노동 해방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던 와중에 형성된 청소년운동으로서 ‘고등학교운동’은 중·고등학교 사회 변혁의 주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 시대의 민주화운동·변혁운동과 관점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청소년 인권이 중심이 되는 청소년 당사자 운동과는 구분된다고 논의된다.; 공현·뚝공, 『인물로 만나는 청소년운동사』, 교육공동체넷, 2016, 9-10쪽.

27) 「인권 침해하는 교육 폭로할 터」, 『시사저널』 336, 1996.4.4, 48쪽.

학생복지회가 문제로 삼았던 것은 크게 “자율·보충 학습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과 ‘체벌’의 수위를 넘어선 교사의 폭력”이었다. 1988년부터 공식 허용된 중고등학교의 자율·보충 학습은 학교장이 최대한 재량권을 발휘해 실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지만,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사실상 학생들에게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²⁸⁾ 교사들의 가혹한 그리고 엽기적 수준의 ‘체벌’이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 역시 적지 않았다.

이러한 뜻을 모으는 과정에 사이버 스페이스는 비록 절대 다수에 비해 소수일 뿐인 이용자 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대한 의지를 실천에 옮기려는 학생으로서는 최상의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좀처럼 만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 아이들이 서로의 뜻을 확인하고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는 과정을 초월하는 PC통신망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테니 말이다. 몇몇 사이버 키드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 95년 12월에는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 학생 스스로에 의해 제안되고, 구성되고, 운영되는 최초의 청소년 단체로써 학생복지회(학복회)라는 이름의 작은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학생복지회는 지금까지 통신상에서 이루어졌던 작은 움직임들을 한데 모아보고자 했다. 누구에게나 동등한 경험의 기회가 주어지는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모임의 운영을 경험하고 여론 형성 과정을 지켜본 아이들이 그 열린 사회 안에서 스스로의 이야기를 하고자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중략) 실제로 최근 학생복지회의 회원들은 PC통신 나무누리의 게시판에서 교육에 대한 글을 동시에 여러 명이 올리는 사이버 스페이스 시위-학복회 내에서 ‘폭력’이라 부르기도 한다-를 감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들의 목적은 물론 중·고생의 유리된 기본적 인권의 회복이었다.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로 숨어 버린 사이버 키드들은 다시 실세계로 돌아오려 한다.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가상의 세계에 구현한 이상적 사회를 실세계로 옮겨

28)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장학 사항으로 권장하던 자율·보충 학습 지침도 폐지했다. 단 ‘일률적인 자율 학습을 지양하고, 희망 학생·희망 교과에 한해 보충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었는데, 학생들은 이 원칙이 말 그대로 지켜지지 않고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학생들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를 참조. 김은남, 「학생의 자유를! 민주화된 학교를!」, 『시사저널』 336, 1996.4.4, 48쪽.

보려는 것이다. 가상의 세계로 숨어들어 가는 듯해도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닌, 보다 나은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실세계로 복귀하려는 노력이 하나씩 가시화 되어 가고 있다.²⁹⁾

학생복지회의 발기인 중 한명이었던 김한울은 이러한 학생복지회의 결성 과정과 활동에 있어서 사이버 스페이스가 “학생으로서는 최상의 환경을 마련”해 줬던 것이라 논의한다. 시공을 초월하는 PC통신망은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해준 측면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스페이스는 누구나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공간이기도 했다.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경험한 말할 권리의 주어짐은 학복지 회원들에게 좀 더 ‘실제 세계’에서 행동에 나서는 자극을 주기도 했다. 김한울은 위 글에서 학복지의 결성이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가상의 세계에서 구현한 이상적 사회를 실세계로 옮겨 보려는 것”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때 가상세계와 실세계에 대한 위계화된 이분법적인 인식이 김한울의 글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가령 “사이버 스페이스로 숨어버린 사이버 키드들은 다시 실세계로 돌아오려 한다”, “가상의 세계로 숨어들어 가는 듯해도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닌, 보다 나은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실세계로 복귀하려는 노력이 하나씩 가시화” 등의 진술에서 이러한 위계화된 이분법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아마도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새롭게 부상했을 때였기 때문에 도입되는 불가피한 구분이었다고 판단된다. 비록 이들이 자신들의 실천이 그러한 구분과 위계를 해체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의 공고한 경계와 위계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실천에 의해 사실상 무너지고 있는 중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글쓰기와 말하기가 이미 ‘실제 세계’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사건’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29) 김한울, 「사이버 스페이스로 탈출한 아이들」, 또 하나의 문화 편,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 1-또 하나의 문화 제13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7, 160-162쪽.

가정과 학교가 아닌 곳에서 다양한 모의를 하고 있었던 ‘불량한 청소년들의 또 다른 사례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오빠부대’, ‘서태지 아이들 기념 사업회’ 회원들의 움직임이다.³⁰⁾ 이를 통해 당대 ‘대중 문화’의 혼종성을 호흡하며 청소년들이 문화적 주체로 거듭나고 있는 국면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신원을 ‘서태지와 아이들 기념 사업회(이하 서기회)’의 회원으로 밝히고 있는 필자는 한강 시민 공원에서 기념 사업회 주최 공연을 펼치는 과정에서 딱딱 쓰린 어른들의 편견과 부주의함을 고발하고 비판한다.

그런데 강민경 회장과 경찰이 몇 마디 나누더니 “여러분, 이번 공연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질서를 지켜 주셔야 해요”라고 말하더니 무대 아래로 내려갔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아? 아이들은 금세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 한강 시민 공원 관리인들이 와서 무대 앞에 묶어 놓았던 현수막을 풀어 내리려 했다. 놀란 서기회 회원들이 달려와서 막으려 했지만 그들은 사고가 나면 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느냐며 팔을 밀치면서 끝까지 공연을 못하게 했다. 정말 난 순간 황당하단 말을 실감했고, 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금세 울기 시작했고, 왜 못하게 하느냐며 온갖 욕설과 악에 받친 고향을 질러댔다. 그 중에서 가장 나의 가슴을 파고 들어온 말이 있었다. “왜 태지 오빠만 가지고 그래요?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일 이런 행사가 서기회가 아닌 다른 방송국에서 한 것이라면 그래도 이렇게 방해할 했을까? 그들이 공연을 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단순히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였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서태지와 아이들=그들의 팬=블랙 리스트’라는 공식이 성립되어 있는 듯했다. 왜 그럴까? **그들의 눈에는 아직도 우리가 철부지, 사고뭉치 어린애들로만 보여서 그럴까?** 잠시 동안 임원진들과 실갱이를 벌이던 그들은 사라졌고, 우리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중략)

(중략)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행사에 대한 대접이 겨우 이 정도란

30) 아래의 논의는 다음의 논문 4장 1절에서 이뤄진 논의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김정은, 『또 하나의 문화』에 나타난 페미니스트 문화기획과 글쓰기 실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3 참조.

말인가.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위치를 분명하게 보여준 일이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공연 문화 특히 청소년 공연 문화가 얼마나 빈약한지 그리고 **‘공연이라는 것 자체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는지** 실감했다. 콘서트 혹은 공연을 단순히 시끄러운 소음과 광적인 아이들이 모여서 소리 지르는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어른들. (중략) 몇 달 전에 한 방송국 공개 방송에서 사고나 나서 학생들이 다친 일이 있었다. 여론에서는(어쩌면 언론이라는 탈을 쓴 어른들이) 안전 장치 미비와 학생들의 무질서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근본적인 원인은 그 학생들 스스로가 공연에 자주 갈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공연장 시설에 익숙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이 마음놓고 공연을 즐길 곳은 그다지 많지 않다. 때때로 외국이라든지 국내의 유명한 성악가, 연주단이 와서 공연을 하긴 하지만 2~3만원을 호가하는 입장료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부담이 된다. 그렇다고 방송국이라든지 콘서트장 가기도 힘들다. **방송국에 가는 애들은 다 날라리고 불량 학생으로 보는 사회의 시선**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별로 없다. 구를 중심으로 ○○구 청소년 회관이 있긴 하지만 시설도 매우 취약하고 우리들이 흥미를 가지고 배우고, 즐길 과목은 없다. 그러다 보니 쌓이는 스트레스(우리들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냐고? 하 하 하)를 풀기 위해 노래방, 단란 주점, 당구장 등을 찾게 되고, 그 사이에 일부 청소년들은 나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문화’라는 것은 그 사회 대다수 사람들이 즐기며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본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우리 나라에서는 ‘문화’라는 것은 부유층만이 누리는 특별한 일**이 되어 버렸다. 나중에 우리들이 아무런 지식 없이 무엇이 잘되었고 무엇이 불편했는지 모르고 크다면 어떻게 될까? **처음부터 잘되는 일은 없다. 많은 시행 착오와 비판을 받는 속에 발전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 애들은 안돼. 사고만 치고…; 차라리 하지 못하게 해.” 이 방법이 지금의 우리 세대에겐 통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통할까? 무슨 특별한 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말로만 선진국 문화를 본받아야 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 나라 실제 상황에 맞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³¹⁾ (강조 - 인용자)

필자는 청소년의 행동을 쓸 데 없는 것으로 치부하며 청소년을 미숙한 아이로 간주하는 태도를 우선 비판한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준비·개최한 행사를 강제로 철거·저지하려 했던 어른들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을 ‘아이’, “철부지, 사고뭉치 어린애들”로만 본다는 것이다. 필자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행사에 대한 이러한 어른들의 대접이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위치”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 해석한다. 이어서 “콘서트 혹은 공연을 단순히 시끄러운 소음과 광적인 아이들이 모여서 소리 지르는 것으로 간주”하는 공연 문화에 대한 왜곡된 인식 역시 꼬집는다. 이러한 공연 문화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가수의 공연을 보기 위해 방송국이나 콘서트장에 가는 애들을 “날라리”나 “불량학생”으로 보는 편견과도 쌍을 이루는 것이다.

이 글은 청소년이 문화의 향유자이자 생산자가 되는 국면에서 경험했던 당대 한국 사회의 경직된 이분법을 해부했다고 할 수 있다. ‘어른/아이’, ‘고급문화/저급문화’, ‘건진/불량’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른들은 청소년이 소위 “나쁜 길”로 빠지는 것을 우려해 아무 것도 하지말라는 방법(“우리 나라 애들은 안돼. 사고만 치고…; 차라리 하지 못하게 해.”)으로 청소년들을 교육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비교육적인 것임을 비판한다. 당대의 청소년들은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은 없”으며 “많은 시행 착오와 비판을 받는 속에 발전”하는 것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어른들에게 거꾸로 가르쳐야 하는 형국이었다. 또한 ‘문화’가 ‘소수’의 ‘특별’한 이들이 즐기는 것이 아님 역시 강조해야 했다. 필자는 한국 사회에서 ‘문화’가 부유층만이 누리는 특별한 일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진단 속에 문화의 민주주의를 말한다. ‘문화’란 소수가 향유하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 대다수 사람들이 즐기며 만들어지는 현상”으로 누구에게나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른/아이’, ‘고급문화/저급문화’, ‘건진/불량’ 등의 이분법이 이 글을 통해 비판적으로 다루어진다고 할 때, 이러한 인식이 ‘서태지’리는 문화현

31) 이선영, 「청소년은 나라의 기둥이랴구?!」, 또 하나의 문화 편,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 1-또 하나의 문화 제13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7, 70~73쪽.

상을 통해 매개되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자신을 소개할 때 “1981년에 태어나 아무 생각없이 살다가 1992년 서태지를 만나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됐다. 서기회(서태지 기념 사업회) 회원이며 대중 문화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다.”³²⁾고 밝히기도 했다. 서태지를 만나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됐다는 이 필자의 발화는 주목을 요하는데, 대중 문화가 1990년대의 저항적 ‘주체 형성’과 맺었던 관계를 검토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체 형성’과 관련해 1990년대의 대중문화, 그 중에서도 서태지의 음악이 보여줬던 혼종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민족에게 가장 민감한 ‘통일’이라는 문제를 담고 있는 ‘발해를 꿈꾸며’, 그리고 가장 이기적으로 사고되고 있는 ‘교육’의 문제를 꼬집은 ‘교실 이데아’. 이 두 곡은 아이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대학생 이상의 지식인들의 눈을 돌리게 만들었다.

그럼 왜 이런 이유로 서태지를 주목할까? 우린 신해철이라는 걸출한 철학자 가수를 가지고 있다. 그는 현대인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도시인’, N.E.X.T. 1집 가운데) 삶이 만들어지는 방식, 아니 그 현실 자체에 비판을 가한다. (‘껍질의 파괴’, N.E.X.T. 2집 Part 1 가운데) 강산에는 또 어떤가. 그의 ‘...라구요’의 메시지는 그 첫가사의 친숙성과 함께 많은 대학생들의 입에 붙여질 수 있었다. 게다가 우리는 통일, 교육을 다룬 수많은 민중 가요와 언더그라운드 가요를 알고 있지 않은가. 그렇지만 그들의 땀이 담긴 가사는 수용 고객의 범위 면에서 대중성 확보에 의도적으로, 또는 어쩔 수 없이 실패하고 말았다.

‘발해를 꿈꾸며’가 온통 흑백인 배경에 이주노의 빨간 속이 담긴 뮤직비디오로 한창 전파를 탈 무렵 한 여학생이 이렇게 말했다.

태지 오빠가 통일 이야기를 하니깐 우리도 통일에 대해 생각해 봐야죠

32) 위의 글, 73쪽.

서태지 스스로의 말은 이렇다.

*옛날에 우리는 만주까지 진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발
해를 꿈꾸면서 나라를 통일해 보자는 뜻에서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94. 8. 15.
신곡발표회 콘서트장에서*

언더그라운드적 가사와 대중매체의 결합, 이것은 많은 음악인들에게 불가능한 일로 여겨져 왔다. 대중가요의 주고객으로서의 10대에게 그런 가능성은 더 철저히 봉쇄된 것으로 여겨졌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서태지가 도박을 한 것이다. 물론 그의 도박은 앞에서 언급된 든든한 팬들을 뒷배경으로 성공했고, 서태지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첫 번째 주자가 되었다.³³⁾

위의 인용한 부분은 13호에 실린 또 다른 글로 자신을 서태지 팬이라 밝힌 20대 대학생이 쓴 「서태지와 '아이들」의 일부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교실 이데아'로 대표되는 서태지의 3집이 언더그라운드적 가사와 대중매체를 결합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실험이자 전에 없는 혼종이라 말한다. 언더그라운드적 가사를 가지고도 대중성 확보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는 것이다. 물론 서태지의 3집이 보여준 '혼종성'에 대한 지적은 이 글만의 것이 아니었다. 일례로 이영미는 1994년에 발표한 한 글에서 서태지의 3집이 "탈사랑타령의 가요들이, 이제 언더그라운드의 벽을 넘어 대중가요계의 표면으로 부상하고 그것이 폭발적인 성공"³⁴⁾을 거두었던 최초의 사례라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기존의 논의들이 그 '혼종성'이 수용자(청소년 팬)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에 대해서는 '오빠 부대'라는 단순한 규정 속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할 때, 우리는 또문에 실린 두 글을 교차해서 읽으며 서태지와 '아이들'에 관한 내용

33) 김성태, 「서태지와 '아이들」, 또 하나의 문화 편,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 1-또 하나의 문화 제13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7, 81~82쪽.

34) 이영미, 「TV가요와 언더그라운드 가요의 끼안기 -서태지의 <발해를 꿈꾸며>와 <교실 이데아>, 『서태지와 꽃다지』, 한울, 1995, 155쪽.; 이 글의 최초 발표 지면은 『사회평론 길』 1994년 10월호이다.

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대중 음악을 들으면서 열광한 세대가 어떤 ‘아이들’로 자랐는가에 대해서 서기회 회원들은 몸소 보여줬던 것이다. 문화학술장에서 오랜 기간 작용해왔던 경직된 이분법 중 하나인 언더그라운드/대중의 이분법을 가로지르는 어떤 ‘혼종성’을 서태지의 음악이 나타낸다고 할 때 이러한 혼종성에 익숙한 세대들로 서태지와 아이들의 ‘아이들’은 자라고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목소리 역시 그 ‘혼종성’을 호흡하며 발견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1990년대의 ‘불량한 청소년들 - 탈학교 청소년, 오빠 부대, 사이버 키드 등 - 은 청소년의 해방을 주장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규정을 뒤집으며 한국 사회에 작용해온 위계적 이분법을 해체하고 있었다. 1990년대에 등장한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인정해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그 호소의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서 작용해온 ‘어른/아이’, ‘실제세계/가상세계’, ‘고급문화/저급문화’, ‘건전/불량’, ‘언더그라운드/대중’ 등의 다양한 위계적 이분법을 깨트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청소년들의 ‘자유’와 ‘해방’에 대한 주장은 단지 그들의 ‘자유’와 ‘해방’을 주장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와 문화에서 작용해 온 다양한 위계적 이분법을 깨트리면서 ‘문화’의 민주주의에도 다가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4. 결론을 대신하여

『또 하나의 문화』는 청소년들의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탈식민화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주체’의 자리를 청소년들에게 부여해 역방향의 계몽이 일어나는 것을 의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가속화되고 있었던 ‘민주화’와 ‘개혁’의 방향에서 분명히 소외·배제되어 있었던 청소년을 말할 권리가 있는 ‘시민’으로 그리고 새로운 문화적 주체자로 부각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와 ‘개혁’에 한발 더 다가

가려고 했던 의의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와 문화에 작용해 온 다양한 위계적 이분법을 깨트리는 ‘불량’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새로운 ‘위상’을 부여받았던 점이야말로 또문의 ‘청소년’ 기획이 지녔던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안적 주체 ‘형성’을 기대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의미에서 또 하나의 ‘건전한’, ‘건강’한 시민성을 제시하고자 한 어른들의 ‘계몽’적 욕망과 목소리가 이 기획에도 부분적으로 나타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한혜정은 위에서 언급한 김현진을 수신자로 한 편지에서, 청소년들이 보여주는 종말론적 성향이 급진적인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너희 세대의 올바른 시대 인식에서 오는 것임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이러한 종말론적 성향이 지닌 자기파괴적 성향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³⁵⁾ 선블리흐트러지지 말자는 말 속에는 “사유 능력과 삶을 살고자 하는 건강한 의욕”³⁶⁾을 지닌 건강한 시민이 되자는 청소년을 향한 계몽적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왜 여러 다양한 청소년의 목소리 중에서도 ‘문화적 주체’이자 ‘시민’으로 거듭나고 있었던 ‘건강한 시민성’을 이미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부각되었는지 한번 따져봐야할 문제일 수 있는 것이다. “1권이 나간 이후의 반응을 보면서, 특히 청소년 당사자들이 별로 움직이지 않음을 보면서 편집진이 너무 낙관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고백과 청소년들이 “개개인으로는 한 가정의 왕자, 공주이고 상업적으로는 대단한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일지 모르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날선 비난은 청소년을 함부로 규정하지 말자는 13호의 시도를 거꾸로 되돌리는 퇴행적 발화이기도 했다.³⁷⁾ 이러한 장면은 ‘청소년’을 위해 말은 건다는 당위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기존의 ‘시민성’과는 다른 다원적 시민성을

35) 조한혜정, 「이 땅의 십대들에게 보내는 편지」, 또 하나의 문화 편,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 2-또 하나의 문화 제14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7, 75쪽.

36) 위의 글, 66쪽.

37) 「책을 펴내며」, 또 하나의 문화 편,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 2-또 하나의 문화 제14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7, 6쪽.

발견하는 것을 기대했던 조한혜정으로 대표되는 또문 동인들이 구상했던 ‘역방향의 계몽을 구성하기’가 지녔던 딜레마, 청소년에게 ‘대안적 주체’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계몽의 권력을 부여하려고 했던 시도가 봉착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계몽’으로서의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 참고문헌

기본 자료

또 하나의 문화 편,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 1 - 또 하나의 문화 제13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7.
_____,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 2 - 또 하나의 문화 제14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7.

『시사저널』, 『조선일보』

2. 논문 및 단행본

공현·돛코, 『인물로 만나는 청소년운동사』, 교육공동체넷, 2016.

김영지, 「청소년 웹진(Webzine)활용의 실태와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12.

김정은, 「전망으로서의 여성과 여성 지성의 '자리」, 『한국학연구』 5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_____, 「『또 하나의 문화』에 나타난 페미니스트 문화기획과 글쓰기 실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3.

류진희, 「“청소년을 보호하라?”. 1990년대 청소년 보호법을 둘러싼 문화지형과 그 효과들」, 『상허학보』 54, 상허학회, 2018.

이영미, 『서태지와 꽃다지』, 한울, 1995.

조혜정,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6.

Ethics and Dilemma of Reading ‘Youth Culture’

- The discourse of “Youth Freedom” and youth writing
in *Alternative Culture* in the 1990s -

Jeongeun Kim*

This study focuses on the *Alternative Culture*'s magazine project that attempted to enlighten Korean society in the reverse direction by capturing the voices of youth in the 1990s when they emerged as consumers and producers of culture. *Alternative Culture* still adhered to the concept of culture as a practical ground for forming alternative subjects in the 1990s, and employed a strategy to urgently raise youth issues amid rhetoric of crisis that the cultural logic of post-industrial society was being brought to the fore. Issue 13, *New Youth Stories 1*(May 1997) and Issue 14, *New Youth Stories 2*(December 1997), were attempts to read youth culture stemming from such awareness of the crisis. In Chapter 2, this study focused on the fact that *Alternative Culture* did not use the existing method of enlightening youth, but constituted a reverse enlightenment that enlightened adults through reading ‘youth culture’. In the writing that attempted to speak to the youth as an adult who was not a party, the attitude was to listen to the youth’s voice as the voice of a subordinate subject, and to analyze and interpret the youth’s voice and subculture for the decolonization of Korean society. It can be seen that the eyes looking at the required text appear simultaneously. In Chapter 3, this study focused on how the voices of those who were considered ‘bad’ youth in the 1990s appeared in the pages of Another Culture’s magazine. Called out-of-school teenagers, cyberkids, and Oppa’s unit, they breathed the “cyberspace” that emerged in

*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the 1990s and the “hybridity” of pop culture, dismantling hierarchical differentials such as adults/children, real world/virtual world, high culture/low culture, and underground/popularity. The youth’s claim for freedom and liberation did not stop at just asserting their ‘freedom’ and ‘liberation’, as they were approaching cultural democracy by dismantling various hierarchical dichotomies. It is clear that the magazine project of *Alternative Culture* contributed to the emergence of youth voices with a new ‘status’. However, its limitations can also be found in the fact that the enlightened desires and voices of adults who demanded another sound ‘citizenship’ partially existed.

Key words: *Alternative Culture*, youth culture, out-of-school teenagers, cyberkids, Oppa’s unit, and hybridity

